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EVE OF MAN

가제 : 지구의 마지막 소녀, 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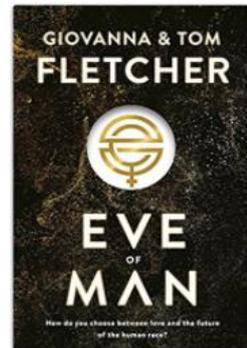
저자 : Tom Fletcher, Giovanna Fletcher

출판사: Michael Joseph Ltd /Penguin Random House Children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분량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미국, 독일, 폴란드, 러시아 판권 계약 체결

* 현재까지 쓴 책들이 총 150만 부 이상 판매,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두 명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선보이는 파격적인 SF 3부작

남아 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맞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다들 남녀 짝궁과 앓을 때 대여섯 명은 남학생들끼리 앓아야 했을 때의 성비 불균형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선호의 문제가 아닌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성비가 완전히 깨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두 사람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한 SF 3부작을 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 산부인과에서 오로지 남자아이만 태어나는 기현상이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기적처럼 태어난 여자아이, 이브의 등장으로 비롯된 혼란을 그린다. 멸종을 피할 길이 없었던 전 인류에게 이브는 태어난 순간부터 구세주가 되고, 모두의 미래를 짊어진 신적인 존재가 된다. 독특한 설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억압된 체계 속에서 조금씩 ‘구세주’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면서 변화하는 이브의 생각을 따라가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처음에는 산부인과마다 신생아들을 끙끙 싸맨 작은 담요가 다 파란색이어도 ‘희한한 일이네’ 정도로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다시 다음 날도 여자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 이런 이상한 현상이 한 병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과학적인 분석과 의학적인 해결 노력이 무수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Y 염색체만 우세해진 이유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 원인을 모르니 해결책도 모르는 상태로 모든 나라가 비상 조치를 시작했다. 임신 가능한 50세 이하 여성 전체가 이 괴이한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집중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단 아이를 많이 낳으면 확률적으로 여아의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임기 여성들은 전부 임신이 장려되고,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전부 성별이 무엇인지 검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손발을 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뻔히 보일 때까지 여자 아이로 밝혀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지만, 출산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당혹감에 빠진 세계 과학계와 의학계, 시민들이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지 모를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여자아이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아는커녕 임신 자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50대 부부에게서 믿을 수 없는 징후가 포착됐다. 불임으로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산지 8년이 지나 갑자기 들어선 아기가 딸로 밝혀진 것이다. 부모는 물론 온 세계가 열광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50년 만에 찾아온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아기 엄마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차단된 특수 의료시설에서 임신 기간을 보냈다. 아이를 최대한 무사히 낳기 위한 조치라 온갖 검사며 까다로운 규칙도 기꺼이 받아들인 엄마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예쁜 딸아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진 아빠는 온 세상이 열광하는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렸다. 인류를 구원할 존재, ‘이브’라 이름 붙여진 그 아이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오직 이브 한 사람만을 위해 구축된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에 따라 키워졌다. 이브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날까지 여러 명의 ‘엄마’와 함께 지상에서 250층 높이로 솟아 있는 ‘타워’ 꼭대기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어울려 지냈지만, 광적인 종교단체와 이브를 소유하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납치, 살해 시도가 끊이지 않자 아이작 웰스라는 과학자의 제안대로, 지상과 멀찍이 분리된 초고층 건물의 형태로 새로운 주거 시설이 설립된 것이다. 이브가 사는 곳은 가장 꼭대기 층인 250층이다.

마침내 이브가 열여덟 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총 세 명의 후보가 이브 앞에 나타난다. 인류의 대를 이을 가장 우수한 파트너를 선발하기 위해 국가가 엄격히 선별한 세 명의 남편 후보들이다. 이브는 이들 중 한 명을 택해 결혼을 하고, 궁극적인 과제인 임신과 출산을 시작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특별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이브는 이번에도 순순히 정해진 수순을 밟으려 했지만, 돌발 변수가 나타난다. 또래 여자친구가 없는 이브를 위해 홀로그램으로 특별히 제작된 유일한 친구, 홀리를 뒤에서 제어하고 ‘운전’해온 주인공이 동갑내기 남자, 브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브는 허울인줄 알면서도 평생 마음을 모두 털어놓은 그와 함께 하고픈 충동에 사로 잡힌다. 처음으로 자유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인류의 미래라는 엄청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브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과 두 사람의 숨막히는 싸움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조바나 플레처(Giovanna Fletcher)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소설 작가로 꼽힌다. 최신작 『Some Kind of Wonderful』은 선데이 타임스 2017년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다. 톰 플레처(Tom Fletcher)는 영국의 베스트셀러 아동도서 작가다. 2016년 데뷔작 『The Christmasaurus』을 시작으로 『The Creakers』와 그림책 『There’s a Monster in Your Book』 등을 썼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그림책 『Dinosaur That Pooped』은 현재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또한 『Brain Freeze』는 2018년 ‘세계 도서의 날’ 도서로 으로 선정됐다.

제목 : THE LOST WITCH
가제 : 사라진 마녀
저자 : Melvin Burgess
출판사: Andersen Press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Junk』로 카네기 메달을 수상한 작가, 멜빈 버제스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신작
- * “신화와 마법, 본능에 관한 이야기, 무척이나 기대되는 스릴러”- 『북셀러(The Bookseller)』
- * “마법과 조작에 관한, 음울하고 깊은 이야기”- 작가 디어드르 오설리반(Deirdre O’Sullivan)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은 프랑스며 이탈리아, 심지어 미국까지 여행을 떠났을 때 비는 요크셔 북부, 시골로 가족들과 짧은 휴가를 떠났다. 그마저도 2주 내내 돌풍과 비가 몰아치는 바람에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엄마아빠가 내내 다투는 소리와 뻑뻑 울어대는 어린 남동생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제발 집에 좀 갔으면, 하는 비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 가족들을 실은 차가 어둑해진 밤에 여전히 세찬 비를 뚫고 황무지를 달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깜깜한 주변 풍경이 갑자기 나타난 불빛들로 점점 밝아지고,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꾸물꾸물 뛰어다녔다. 뒷좌석에서 가만히 내다보던 비는 그 불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것은 토끼, 그것도 아주 큰 토끼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야밤에 토끼 사냥이 벌어진 것이다.

깜짝 놀란 비의 아빠가 차를 세운 사이, 비는 창문을 열고 처음 보는 사냥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바로 곁을 달리던 토끼 한 마리가, 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대로 차 안으로 들어왔다! 한쪽 눈이 없는 토끼는 덩치 큰 개만큼이나 무게도 상당했다. 바로 옆에서 남동생 마이클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앞에서 엄마는 당황해서 고향을 치는데 비는 이상하게도 전혀 겁이 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사냥꾼들이 풀어 놓은 사냥개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미처 달아나지 못한 토끼를 붙잡고 있었다. 비가 섬뜩한 조짐을 느낀 건 그 때였다. 차 바로 근처에서 사냥개에게 물어 뜯기기 일보 직전인 토끼를 비의 무릎 위에 앉아 창 밖으로 내다보던 토끼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앞발을 내밀었는데, 비의 컷가에 ‘날 내보내 줘요’라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어안이 병병했지만 비가 일단 창문을 열자, 이번에는 토끼가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비를 쳐다보았다. ‘내 말을 알아듣다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창 밖으로 뛰쳐나간 토끼는 사냥개를 공격하며 앞서 붙들린 토끼를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버둥대는 몸짓을 지켜보던 비에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한 것이다. 온 몸을 녹여버릴 것 같은 강렬한 감정이 점점 고조되던 어느 순간, 비의 입에서 소리가 튀어나왔다. ‘왕관을 쓴 존재들이여, 그대들을 소환하노니. 내가 소환하고, 명령한다.’ 이런 말이 술술 튀어나온 것이다! 목소리도 평소 비와는 완전히 다르고 표정도, 말투도 섬뜩해진 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모님도, 동생 마이클도 깜짝 놀라 쳐다보기만 했다. 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이 튀어나온 주문은 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엄청나게 몸집이 큰 사슴 떼가 나무 사이사이에서 나타나 사냥꾼들을 향해 달려든 것이다. 쇠처럼 단단한 뿔을 가진 사슴들은 토끼를 붙잡은 개들도 머리로 들이 받고 뒷발로 걸어 차서 한 방에 날려버렸다. 단 몇 분만에 토끼 사냥을 나온 개와 사냥꾼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고, 상황이 정리되자 사슴도 다 사라졌다. 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주문을 외듯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비는 애써 그 날의 일을 잊고 지내려고 애를 썼다. 가족들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비는 그 날 눈 앞에 펼쳐진 환각 같은 장면과 귀에 들린 이상한 소리들은 그냥 잠시 악몽을 꾸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비는 또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하러 집 근처 공원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라스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남자로부터 우연히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배운 뒤부터 부모님을 졸라 새 보드까지 장만해서 며칠 째 연습에 전념하던 비는 잠깐 하늘을 쳐다보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도시 한 가운데 말 탄 사람이 딱 하니 나타난 것이다. 깜짝 놀라 소리까지 질렀지만, 공원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오히려 소리지르는 비를 쳐다볼 뿐이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과 그 위에 올라탄 기수도 뒤를 따라왔다. 한참을 따라오던 기수는 길에 있던 웬 여자아이 하나를 번쩍 들어올려 앞에 태우고 사라지고, 그 뒷모습만 쳐다보던 비에게 열살 남짓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비에게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말과 함께, 흙으로 빚은 괴상한 물건 하나를 건넨다. ‘사냥꾼들이 당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물건이 그들의 힘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했다. 그러나 그 소녀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말은, ‘당신은 마녀’라는 이야기였다.

토끼 사냥이 일어난 날, 사냥꾼들이 쫓던 것은 ‘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마녀 사냥꾼으로, 마녀를 잡아 영혼을 뽑아내고 그 힘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쓰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비가 사슴을 소환해버린 바람에 마녀라는 사실이 들통났고, 아직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제어할 줄도 모르는 비의 힘을 그대로 빼앗기 위해 사냥꾼들이 일제히 나선다. 도망자 신세가 된 비는 공원에서 만난 라스가 오래 전부터 사냥꾼들을 제압하기 위해 힘써온 비밀 세력의 일원임을 알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반격에 나선다. 라스는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의 힘은 점점 강해진다.

<저자 소개>

멜빈 버제스(Melvin Burgess)는 1990년 단편 소설가, 라디오 4(Radio 4) 진행자로 일하다가 『The Cry of the Wolf』를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1996년에 발표한 소설 『Junk』로 카네기 메달과 「가디언」 아동소설상을 수상했다. 이 책으로 2016년에도 ‘YA 도서상 특별 공헌상(YA Book Prize special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2003년 작 『Doing It』은 미국에서 『Life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제작됐다.